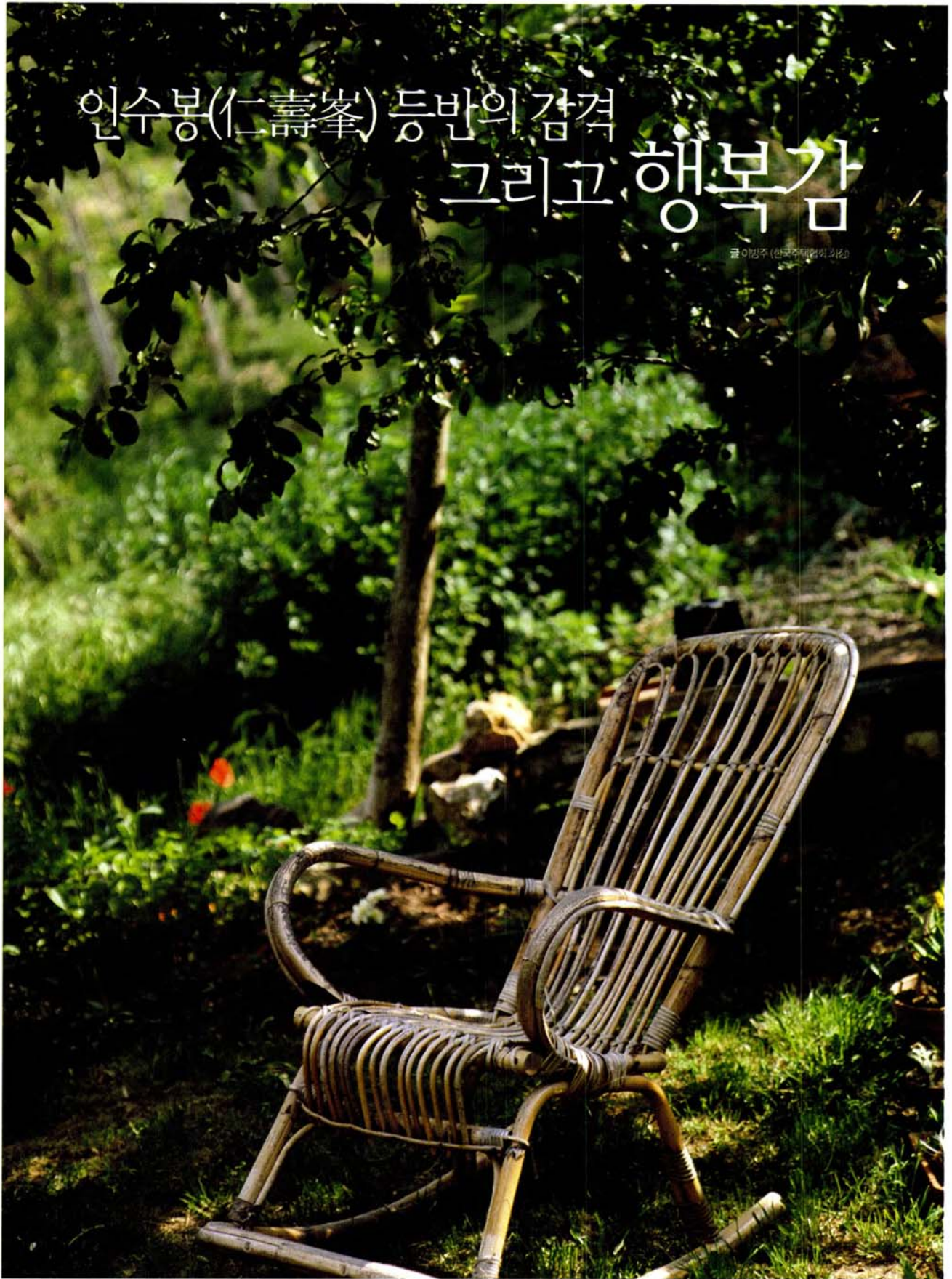


인수봉(仁壽峯) 등반의 감격 그리고 행복감

글 이경주 (한국주택협회 회장)





• 이 글을 쓰신 이방주님은 현재 한국 주택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나는 인수봉을 매우 사랑한다. 삼각산 인수봉을 사랑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이 인수봉이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내 시선을 사로잡는 인수봉은 동쪽에서 막 떠오르는 눈부신 햇살을 받아 마치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것처럼 신비스러운 자태를 드러낸다. 두 번째로 인수봉은 나와 오랜 세월을 같이한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은 그리 많지 않은 서울 토박이로 초등학교 때부터 인수봉, 백운대를 멀리서 바라보며 언젠가는 꼭 인수봉에 오르리라 다짐하며 동경해왔다. 그 후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등산반에 가입해 한라산, 설악산 등반을 비롯해 암벽 등반 기술을 연마했지만, 그 당시에도 고난이도에 속하는 암벽을 지닌 인수봉을 등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드디어 입학 시험이라는 굴레를 벗은 대학 1학년 시절, 마음먹은 대로 서울 근교의 암벽은 물론이고 설악산까지 원정하면서 암벽 등반의 매력에 푹 빠졌다.

인수봉을 초등(初登)한 감격을 누린 것도 그 시절이었다. 암벽 등반은 고도의 집중력, 담력 그리고 특히, 가벼운 몸과 강한 팔다리가 요구되는 스포츠다. 그래서 보통 서른이 넘으면 암벽 등반 하기에는 한물간 나이로 간주된다. 농경사회에서 치열한 산업사회로 변화되고 다시 무한경쟁 시대인 정보사회로 전환되는 세기적 사건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하는 동안 내게 암벽 등반의 기회는 없었다.

다만, 1990년대 중반쯤인 어느 해 가을, 홍용표 선배 그리고 남상태, 김종호의 강력한 권유로 실로 오랜 만에 인수봉을 등반할 수 있었다. 무릎이 까지고 팔꿈치에 멍이 들었지만, 너무나 신선하고 쾌감을 느끼게 하는 등반이었다고 기억한다.

그 후, 다시 인수봉 정상에 오르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날씨가 청명한 날이면 아침 일찍 솟아오르는 동쪽의 햇살을 뚝딱 먹으면서 의연한 자태를 지키고 있는 인수봉을 바라만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사실 오래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한 것도 어찌 보면 북한산 산맥, 특히 인수봉 백운대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에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내던 나는 작년 11월 고대(高大) 산악회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인 '인수봉 100인 오르기 행사'에 마지막 팀으로 참가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앞으로 다시 등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 참여하기로 하고 리치화도 새로 구입했다.

11월 초겨울 날씨가 기온이 낮았지만 하늘은 매우 청명했다. 다른 팀원들은 전날 금요일 저녁에 백운산장에서 숙박을 했지만 나는 집에서 집사람이 해주는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 6시 30분에, 나이 생각하면서 조심하라는 당부를 뒤로 하고 집을 나서, 8시에 인수봉 암벽 등반 지점에서 팀원들과 합류했다. 이 거대한 암벽 등반을 집에서 아침을 먹고 8시에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행복하게 느껴졌다. 그만큼 서울은 산악인에게 등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첫 출발부터 만만치 않았지만 선두는 김종호, 그리고 바로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남상태가 있어 마음이 든든했다. 모두들 1995년 등반할 때보다 민폐가 덜하다는 찬사(?)가 있었으나 이는 새로 장만한 리치화의 도움이 컸다. 요즘 등산 장비는 매우 발전했고 특히 등산화가 바위에 착착 붙는 느낌까지 들게 한다. 침니 코스, 슬라브 코스, 직벽 코스 등을 거쳐 4시간여의 사투 끝에 드디어 인수봉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는 약 100여 평 정도의 평지가 있고 특히 고인돌 모습의 쉼터가 마련돼 있었다. 하얗든 지난번처럼 무릎이나 팔꿈치에 상처가 나는 등 부상(?) 없이 가쁜 상태로 정상에 올랐다.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씻겨진 바위, 이끼 낀 암벽은 부드럽게 느껴졌으며 주위 사방이 확 트인 전망은 가히 일품(一品)이었다. 당시의 기분은 바로 천만금을 주고도 사기 힘든 성취감, 행복감이라고 하겠다. 그러한 성취감 때문에 많은 산악인들이 산을 오르고 인수봉 같은 바위를 오르는 것이 아닐까.

지난 한해 동안 이룩한 내 개인의 업적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인수봉 등정이다. 인수봉 등반 후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잠자리에 들어서서는 항상 인수봉 등반의 감격과 기쁨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 짜릿한 흥분까지 느끼면서 금방 숙면에 빠지는 행복감을 맛보고 있다. 언제 다시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매일 아침 인수봉을 바라보며 그날 암벽 등반의 감격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